바닷길로 전해진 '불교'



바다를 건넌 붓다
주강현 지음
소명출판 / 3만8천원

불교 전해진 경로 중 바닷길에 주목해
아시아 바닷길 네트워크 원형질 압축해
권역별로 불교의 바다 연대기를 재구성
바닷길 통한 전법과정 새 시각으로 정리
2024년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작 선정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저자 주강현.

"불교사의 전개와 전파의 파장은 바다를 통해 가장 먼 데까지 작동됐다. 스리랑카와 동남아 등 바닷길로 전파되었으며, 아프리카 홍해의 항구 베레니케에서 불상이 나오고 있다. 명·청대에는 유라시아 극동의 아무르강변과 사할린까지 관음당이 존재했던 비석이 프리모예 박물관에 전해온다."

〈바다를 건넌 붓다〉는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여러 곳으로 전해진 경로 중에서 바닷길에 주목한 책이다. 바닷길을 통해 불교가 가닿은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곳에서는 어떻게 불교가 전해지고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현장답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소개한다.

기존의 불교사와 방향을 달리하여 역사 공간 혹은 공간역사의 이동과 접촉, 교류와 혼용 관점에서 서술된 불교사이자 연대기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20여 년에 걸친 현장조사에 입각해 방대한 분량의 〈해양실크로드문명사〉를 출간하고, 그것의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를 건넌 붓다-세계 불교 바다연대기〉를 마무리함으로써 인도양과 태평양에 걸쳐있는 아시아의 바닷길을 마감한다. 이 책은 '유럽 이전의 바닷길'로서 아시아문명을 형성시킨 바닷길 네트워크의 원형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 후속작업으로 바닷길을 통해 실천된 전법의 과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했다. 이 작업은 기존에 통용되었던 역사적 기록에 대한 재검토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남방과 북방, 대승과 소승으로 불교를 나누어 이해하던 관행을 버리고, 두 개의 반대적 맥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보고자 했다. 이 작업은 역사학과 민속학 내지 인류학 그리고 불교학의 종합적 결실로 볼 수 있다.

'불교의 전파'에서 기본적으로 언급되는 동전(東傳)은 그야말로 '도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직선으로 전해진 것이 아닌 것이다. 여러 나라와 지역, 민족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 교류와 상호 영향의 역사로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산물이다. 책에 의하면 바닷길로 들여다본 불교의 전파는 '남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남전불교는 스리랑카·미얀마·태국·캄보디아·라오스 등을 포함한 동남아에 전파된 스리랑카 대사파의 상좌부불교를 말하며, 북전불교는 북인도에서 서역을 거쳐 동아시아에 전해진 불교와 네팔·티베트를 경유하여 몽고 일대에 전해진 불교를 총칭한다.

19세기에 불교연구를 시작했던 서구 학자들이 팔리어 계통의 불전이 유행하는 동남아 불교에 대하여 '남방불교' 이름을 붙였고, 반면에 범어 불전과 그 번역이 유행한 지역의 불교를 인도에서 북쪽으로 전파되었다고 하여 '북전불교'라는 이름이 붙었다. 팔리어 또는 범어불전이 모두 인도에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엄밀하게 남전과 북전으로 이분하는 것은 적절한 분류법이 아닌 것이다.

책은 동남아 불교사나 상좌부불교에 방점을 둔 연구가 아니다. 그러나 남방의 바닷길로 이들 불교가 이동했으며, 오늘날도 최대의 불교국가로 남아있는 이들 남방불교의 바닷길을 주목하고 있다. 황금의 땅 수바르나푸미는 오랜 고대적 서사이며, 아소카가 보낸 전교사가 기원전에 이 땅에 당도한 기록이 있다. 오늘의 태국불교는 고대 몬-드바라바티 문화에 그 뿌리를 둔다. 교지(통킹만) 바닷길로 내려온 베트남 불교는 중국 남부의 선종 영향권에 놓여 있으며, 스리위자야 불교도 초기 불교의 대승전통과 후대의 밀교전통을 모두 갖고 있다. 반면에 베트남 남부 짬파불교의 동즈엉유적은 북방 선종이 아닌 남방 바닷길로 도착한 불교이다.

저자는 불교 전파의 바닷길이 의도하는 바를 제시하여 학문적 이해를 구하고자 했다. 책은 권역별로 불교의 바다 연대기를 재구한다. 그 길은 갠지스강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스리랑카, 벵골만, 아라비아해, 장안에서 천축으로 이어지는 구법순례, 말레이반도와 시암만, 자와해, 메콩강, 남중국해, 한반도로 이어지고 일본열도에서 맺는다.

불교의 4대 성지는 모두 갠지스강가이며, 벵골만 바닷길은 북방에서 내려온 불교가 동남아로 전파되는 루트였다. 벵골만에서 어느 날 배가 출발하여 '신비로운 섬 랑카'에 불교를 내려 놓는다. 내륙을 거쳐서 남하한 것이 아니라 갠지스강 하구에서 출발한 이동과 전파였다. 벵골만에서 바다를 건너가서 당도한 스리랑카에서 불교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다. 동시에 벵골만 동쪽으로 내려가 미얀마 바닷가에 불교가 안착했으며, 수완나부미라 부르던 황금의 땅 동남아의 전교가 시작됐다. 스리랑카와 동남아 불교 교섭은 전적으로 선편을 이용했다. 스리랑카에서 미얀마와 태국 등지로 불교가 전파되었던 반면에, 스리랑카 불교가 타밀족의 침략으로 와해·단절 위기에 처했을 때 동남아 불교가 서쪽으로 향하여 스리랑카 불교를 재건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불교 전파는 동진만이 아니라 서진도 존재하며, 북진과 남진이 모두 존재했다.

동남아와 중국으로의 해양을 통한 불교 전파에서 칼링가 역할이 중요했다. 스리랑카, 미얀마와 말레이반도, 수마트라와 자바, 캄보디아 등의 불교는 대체로 동인도에서 출발한 상선을 타고 전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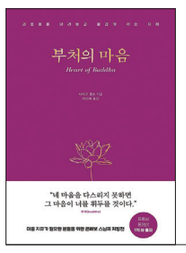
서쪽에는 서역이라는 각별한 공간이 존재했다. 인도-그리스왕국이 존재하던 공간이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헬레니즘제국에게 육로만이 아니라 인도양 바닷길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간과됐다.

말레이반도에서는 인도에서 넘어온 것으로 비정되는 산스크리트·브라흐미·빨리·팔레바 등 다양한 언어의 비문이 다수 발견됐다.

일찍이 가야의 불교나 백제의 불교는 바다를 통해 열렸으며, 특히 마라난타의 당도가 의미하는 남조와의 바닷길은 구체적인 것이 밝혀지지 않은 미궁의 역사이나 해양불교의 중요 사건으로 기록됐다.

주강현의 〈바다를 건넌 붓다〉는 불교평론이 수여하는 2024년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저자가 말했듯이, 역사 속의 구법·전법승들은 노마드(nomad)였다. 저자 또한 바다의 노마드가 돼 불교가 전파되어 간 바닷길 중심의 불교사를 연구한 끝에 그 성과를 세상에 내놓았다"며 "〈바다를 건넌 붓다〉는 수십 년간 세계의 불적지를 두루 답사한 현장 연구의 노작인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괴로움은 스스로 만들어 낸 것"



부처의 마음
다이구 겐쇼 지음
이선희 옮김
달먹는 토끼 / 1만7천8백원

"본당에 앉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스승은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말없이 부처님 앞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슴 속에 괴로움이 들었다면, 소중한 사람이 괴로움 속에 있다면, 이 책 〈부처의 마음〉이 필요하다. 일본 아이치현 고마키시에 있는 작은 선사(禪寺)의 주지스님인 다이구 겐쇼가 마음 치유가 필요한 대중에게 전하는 설법으로, 동양철학과 부처의 가르침을 생활불교에 적용한 '지혜집'이다.

저자인 스님 역시 살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인해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다. 스님은 540년 전에 창건된 복엄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아버지이자 스승으로부터 세 살 때 경전을 받았다. 스님은 엄격한 환경이 싫었다. 출가만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스님이 가슴 속에 괴로움이 들어찰 때마다 찾은 곳은 결국 부처님이었다. 부처님 앞에서 울었다. 그러면서 괴로움에 대해 깨닫게 됐다. 괴로움은 결코 자신의 바깥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스님은 괴로움과 마주할 때면 불교 경전을 보기 시작했다. 거기에 '길'이 있었다. "진리란 시대와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거나 지혜를 말하는데, 그런 진리가 쓰여 있는 것이 불교의 경전입니다."

스님은 불교의 경전에는 세수하는 방법부터 명상법, 정신 집중법, 가정 화목법, 육아법, 건강법, 재산 증식법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괴로움에 대한 힌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스님은 그런 지혜가 담긴 경전의 의미를 곱씹으며 자신 안에 새겨 넣고, 사업에서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자 신기하리만큼 정신이 안정되고, 매일 벌어지는 사소한 사건에 일일이 동요하지 않게 됐다. 주변의 모든 일들이 좋은 쪽으로 흘러갔다. 스님 자신이 변하자 주변으로부터 상담 의뢰가 들어왔다. 연애 고민, 건강 고민, 육아 고민, 삶의 의미에 관한 고민, 장래의 꿈에 관한 고민, 회사 경영에 관한 고민 등 주지 소임을 보면서 틈틈이 이런저런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튜브 채널 '다이구 스님의 일문일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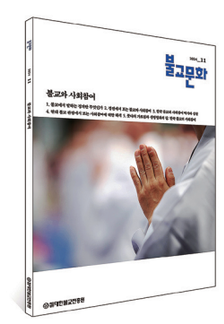
책 〈부처의 마음〉에는 스님이 지금까지 해온 고민 상담과 관련한 '괴로움을 내려놓는 방법'을 담았다. 아울러 인간관계와 일에 대한 고민을 비롯해 금전, 경영, 육아, 가족 문제, 연애, 질병에 관한 고민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책은 총 50장으로 만들어졌다. 눈에 띄는 제목을 보고 관심 있는 장부터 읽어도 무방하다. 책의 장점이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밑줄을 긋거나 필사하고 싶을 만큼의 지식과 지혜가 듬뿍 담겨 있다.

동양철학과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한 스님의 현실적 조언은 마음치유가 필요한 대중에게 실제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자

불교, 사회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불교문화' 11월호 발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불교 대중 문화지 월간 〈불교문화〉 11월호(통권 제291호)를 발간했다.

11월호의 특집 주제는 '불교와 사회참여'로 불교가 사회적 실천을 통해 현대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며 그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는지를 다룬다.

구상진 변호사는 '불교에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불교의 정의는 정법(正法)에 따른 여법(如法)한 생활과 국가 사회질서에 귀착된다고 했다.

이재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부교수는 '경전에서 보는 불교와 사회참여'에서 경전에서는 이상사회를 탐욕으로 인한 소유욕에서 해방된 곳으로 그린다고 설명했다.

박수호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한국 불교의 사회참여 역사와 성찰'에서 실질적인 불교 사회운동은 1976년 민중불교운동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됐고, 1990년대 이후는 환경, 인권, 여성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난민 지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됐음을 조명했다.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 원장은 '현대 불교 관점에서 보는 사회참여에 대한 해석'을, 이명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드라망연구소장은 '붓다의 가르침과 생명평화의 길: 한국 불교의 사회참여'를 게재했다. 신중일 기자

깨달음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행복교과서



행복하고 싶은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주는 명상시, 입보리행론송

7~8세기의 성자 샨티데바가 모든 사람이 가장 바라는 행복으로 가는 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아름다운 게송(명상시)으로 일깨워 준 입보리행론송!
수행자의 안목으로 감동적인 게송만을 정선精選하고 개역改譯한 책

역자 원인, 저자 샨티데바 | 216쪽 | 15,000원

원인 스님 1969년 합천 해인사 입산, 1974년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 이후 50년간 선원과 토굴에서 정진, 2010년 김천 수도암 선원장, 현재 태백산 큰마음도량 회주, 유튜브 큰마음TV, 다음 큰마음카페
저서로 법문집《마음고향 가는 길》,《염불선의 요체》, 강설집《삶의 지혜(금강경 강설)》,《선으로 본 화엄경 요점 해설》,《초발심자경문 강설》, 선시집《마음여행》,《자연 속에서》,《구름 따라 길 따라》 등이 있다.

NEW BOOK
출판 기획안을 받습니다

도서출판 민족사에서는
참신한 불교책 기획안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minjoksa.org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